

사고가 내게 준 교훈

LG필립스LCD 이 민 수

내가 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한 것이 었 그제 같은데, 벌써 여덟 번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 고 있었다.

처음 Line Tour를 하며 밖에서 막연하게 생각하 던 공장이랑 너무 많이 다른 모습에 두 눈 휘둥그레 쳐다보던 장비며, Line 일들, 처음의 낯설음은 어느 새 사라지고, 이제 내 손에 익어 굳이 조금 과장해서 표현 한다면 안 보고도 할 정도로 숙달이 되어 있었 다.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일하며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늘 하는 일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했 던 어느날,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 발생 하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처음 입사를 하고 얼마 지 나지 않아 Module의 SMT공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장비 공정 이름조차 아련하게 떠 오를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때의 그 사고만 큼은 아직도 너무도 선명하게 내 기억의 한 공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일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안 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 주 고 있다.

그날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 다.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일하던 장비는 Model Change를 하게 되면 Zig도 바뀌야 하고, 바뀐 Zig 에 맞춰 장비 Teaching도 다시 해야 했었다.

내가 해야 했었던 일인데 그날따라 머리가 아팠던

탓에 선배 사원에게 Zig를 바꿔 달라고 부탁했었다. 선배는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고, 나는 선배 사원의 장비를 잠시 보았고, 선배는 내 장비에서 혼자 열심히 Teaching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선배의 비명소리가 들려 왔고, 내가 달려갔을 땐 반장님께서 달려와 선배를 빼내려 하고



있었다. 선배의 머리가 장비와 Robot Arm 사이에 끼인 것이었다.

그 장비는 Teaching 중에 장비 안으로 몸을 숙여 여러 번 확인을 해가며 Button을 조작해야 했는데, 조작기를 손에 쥔 채로 움직여 가며 확인을 하다가, 무심결에 보면서 Button을 누른 것이었고, 사고는 Button을 잘못 눌러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늘 하던 일이다 보니 손에 익어 방심했던 것이다.



선배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천만 다행으로 눌린 부분이 심하지 않고 약간의 상처만 치료받고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내게 남겨 준 교훈은 너무도 컸다. 만약 내 몸이 괜찮아 별일 없이 내가 직접 Teaching을 했더라면 선배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도 들지만, 나 또한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방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처음에 배웠던 안전한 작업 방법보다는 자신에게 편하게 그리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방법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었다.

처음 장비를 배울 무렵, 작업방법은 무엇보다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배웠지만 어느새 생산량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전은 뒷전이고 목표하는 수량 달성에만 모든 신경이 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때 모든 기준이 시간과 다투는 작업이었고, 5분의 Loss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었기에 나 역시도 Button 한번 누르고 확인하고 Button 한번 누르고 확인해가면서 작업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고는 곧 나의 일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 일 이후 반장님은 어느 때 보다 확인 작업을 강조 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반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사고의 원인을 따지면 단순히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었지만, 그 무관심에서 비롯된 사고에 대한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 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누군가가 희생된다면 목표 했던 생산량 달성이란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생산량이나 목표량 달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이다. 건강과 행복을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령 있더라도 바꾸지 않을 것이기에 안전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들었다.

그 일이 있는 후, 반장님은 어느 때 보다 확인 작업을 강조 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반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사고의 원인을 따지면 단순히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었지만, 그 무관심에서 비롯된 사고에 대한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 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누군가가 희생된다면 목표 했던 생산량 달성이란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생산량이나 목표량 달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이다. 건강과 행복을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령 있더라도 바꾸지 않을 것이기에 안전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안전만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든다. 내 머리 속에서 안전이란 두 글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 어느새 사고는 곁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확인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 그 사건은 당연한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그 일 이후 반장님은 어느 때 보다 확인 작업을 강조 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반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사고의 원인을 따지면 단순히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었지만, 그 무관심에서 비롯된 사고에 대한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 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누군가가 희생된다면 목표 했던 생산량 달성이란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생산량이나 목표량 달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이다. 건강과 행복을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령 있더라도 바꾸지 않을 것이기에 안전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